



놀이를 통해 재미있게 배우고 행복해져요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우리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학부모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유아기 놀이, 왜 필요할까요?

아이들은 타고난 본성인 놀이를 통해 주변의 물리적 세계와 사회적 관계를 풍부하게 경험함으로써 변화무쌍한 삶에 대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놀이를 통한 배움은 재미를 동반하므로 아이들은 재미를 주는 다양한 놀이를 스스로 찾고 반복하게 되어, 전인적인 발달과 학습을 즐기는 성향, 그리고 쉽게 재미를 느끼는 긍정적인 뇌의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놀이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증진시켜요!



움직이는 놀이는 신체적 기능을
숙련시켜요.



사물을 활용한 놀이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켜요.



흉내놀이와 상상놀이는 추상적 사고와
언어능력을 발달시켜요.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친교놀이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터득을 폭넓게
신장시켜요.



놀이는 학습을 즐기는 성향을 만들어줘요!

놀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재미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아주 어릴 때부터 놀이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재미있는 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놀이-재미-반복-학습’의 지속적인 고리가 ‘학습’과 ‘즐거움’을 탄탄하게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심적 성향인 놀이성에 관심을 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놀이성이란 삶의 무수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재미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긍정성과 삶에 대한 세련된 태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놀이는 유아기의 뇌 발달에서 긍정적인 감정선의 형성을 촉진시켜요

최근의 연구들은 놀이가 원초적인 감정들을 담당하는 피질 하부의 변연계(대뇌 고피질)에 의해 표출된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일명 ‘포유류의 뇌’ 라고도 불리는 변연계는 생의 초기에 발달하는 부분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애착 대상과 격리되었을 때 슬픔이 밀려오는 것 등이 바로 변연계의 발달로 일어나는 감정 현상입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감정현상들은 생존에도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해부학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놀이도 변연계의 발달로 가능해지는 것이며, 놀이로 인해서 재미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의 발달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된 재미와 학습 간의 긴밀한 관계를 함께 고려해 보면, 놀이는 긍정적 성향과 학습을 즐기는 성향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생존에 기여하는 타고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가 부족할 경우,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놀이가 결여되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실조된 상태라면 앞서 언급한 풍부하고 즐거운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되고,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자발적인 학습이 원활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상태에서 형성된 뇌는 편향적이거나 수용력이 떨어져서 쉽게 만족되지 않는 뇌, 특정 자극에 집착하는 뇌가 될 수 있습니다. 놀이와 뇌발달 그리고 문제행동을 연결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린 시기의 놀이실조가 사회성과 동기의 결여, 우울성향, 충동조절 장애, 반사회성 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